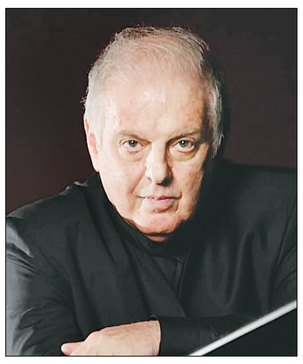
‘만해대상’ 평화대상에 바렌보임 선정

동국대, 제25회 수상자 발표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 창단
음악 통해 팔 · 이 화합 주도

실천대상에 보각 스님 · 김하종
오정희 · 강수진 문예대상 선정
오는 8월 12일 만해축전서 시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다니엘 바렌보임


보각 스님


김하종 신부


오정희 소설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만해 한용운 스님의 뜻을 기리는 제25회 만해대상 평화대상 수상자에 다니엘 바렌보임이 선정됐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곽채기 · 동국대 교무부총장)는 ‘제25회 만해대상’ 수상자 선정 결과를 7월 21일 발표했다.

올해 평화대상은 세계적인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이 수상했으며, 실천대상은 자제공덕회 이사장 보각 스님과 성남 노숙자 쉼터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가 받는다. 문예대상은 소설가 오정희 씨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평화대상 수상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은 음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 세계적인 음악가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유대인 음악가로, 1999년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 영문학자 에드워드 사이드와 손잡고 ‘서동시집 오케스트라(West-Eastern Divan Orchestra)’를 창단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 음악을 통해 화합을 실천하도록 했다. 당시 바렌보임은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는 “무지(無知)에 대항하는 기획”이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무지로 인한 공포와 적대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보각 스님은 한국불교계 사회복지사업의 선구자다. 1970년대 조계종 스님 중 처음으로 대학교(상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1985년부터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해 2019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길러낸 제자가 1000여 명에 이른다. 전국불교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절반 이상이 그의 제자다. 보각 스님은 “사회복지는 그 자리에서 검증받는 현장 수행”이라며 “실천 없는 자비는 무자비와 같다. 부처님이 지금 시대에 오셨다면 사회복지사의 모습으로 출현하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대상 공동 수상자인 김하종(본명 빈첸시오 보르도) 신부는 경기도 성남 노숙인들의 대부다. 매일 성남시 성남동 성당 인근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 500~600명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의료지원을 돕고 인문학 강좌까지 개설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 뼈를 묻겠다’며 사후 시신과 장기기증까지 한 그의 바람은 “시설 책임은 한국인에게 맡기고 나는 봉사만 하고 싶다”는 것이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오정희 소설가는 “오늘의 한국문학에서 인간의 내면 탐구 소설에 관한 귀감으로 꼽히는 창작 세계를 일궈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8년 서라벌예대 문창과 재학 중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으로 이른 나이에 등단한 오정희는 서정적이면서 밀도 높은 문체의 미학을 빚어냈다. 한국 사회의 이면(裏面)에 숨은 보통 여성의 일상적 삶을 다루면서, 인간 존재의 보편적 근원과 심층을 섬광처럼 조명한 소설을 잇달아 발표했다.

함께 문예대상을 받는 강수진 단장은 1985년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옹이처럼 튀어나온 뼈, 뭉개진 발톱, 굳은살과 상처들이 그대로 드러난 그의 ‘세상에서 가장 못난 발’ 사진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강수진 단장은 국립발레단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 발레의 대중화라는 의무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찾아가는 지역공연’, ‘찾아가는 발레교실’ 등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만해대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리는 만해축전에서 개최한다.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뜻을 기리는 만해축전은 동국대와 강원도, 인제군, 조선일보,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유심작품상 시상식을 비롯해 학술행사, 문화예술 행사 및 경연대회, 지역대동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으로 故 무산 오현 스님의 주도로 제정됐다. 역대 수상자로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 라마, 정주영 前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前 대통령, 함세웅 신부, 마리안느 스퇴거 前 소록도 간호사, 조정래 소설가, 모옌 노벨문학상 수상자, 산학인 엄홍길 등이 있다.

금강 스님 · 장규언 교수 제36회 불이상 수상

불이회 7월 20일 발표


금강 스님


장규언 교수

해남 미황사 前주지 금강 스님과 장규언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연구교수가 불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이회는 “제36회 불이상 실천 분야 수상자로 금강 스님을, 연구 분야 수상자로 정규언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2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실천 분야 수상자인 금강 스님은 조계종 교육원 교육아사리, 교육위원 등을 거쳐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미황사 주지 소임을 맡아 미황사를 자연과 화합하고 한국의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는 불사로 가람을 일신했다.

금강 스님은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원광대 동양학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승가대 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연구 분야 수상자 장규언 교수는 난해한 원측 스님의 유식학을 꾸준히 연구해 원측 스님을 신라를 뛰어넘는 전체 대승불교 내에서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규언 교수는 한국사상사학회 편집이사와 동국대, 금강대 등에서 HK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사상사학회 논문상(2014),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상(2016)을 수상했다. **신성민 기자**

“부산시, 폐기물매립장 사업 부결하라”

조계종 환경위, 입장문 발표
청정 지역 장안사 수호 촉구

최근 장안사 인근에 설치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 · 처리시설과 관련,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7월 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산시에 대해 “장안사 인근 폐기물 매립 ·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불자들의 반대 여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반대 결정을 내려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환경위는 “장안읍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 이후 원전밀집지역으로 기장군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의 설움이 깊은 곳”이라며 “특히 천년고찰 장안사는 청정환경 사찰림과 수점의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는 등 뛰어난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이러한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운영에 수반되는 악취와 오염수가 주민들의 주거지와 장안사 계곡으로 흘러와 더 이상 기장군민의 정신적 휴식 도량으로 자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위는 “국가와 부산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 지역내 갈등과 불신을 종식시켜달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부산시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즉각 부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표명하며, 전문가 검토를 포함하여 지역 교구본사 및 사찰, 환경단체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부처님 가피로, 올림픽 선전을”

도쿄올림픽 23일 개막, 불자선수 선전 다짐

사격 진종오 · 펜싱 김지연 메달권
유도 곽동환 · 가라테 박희준 독실
총 70여 불자선수들 선전 다짐해

일본 도쿄올림픽이 7월 23일 개막한 가운데, 불자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불심으로 정신무장한 사격 진종오를 비롯한 불자 선수 70여 명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불자선수 중 메달 기대주로는 먼저 사격 간판 진종오 선수가 있다. 진종오 선수는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 올림픽 출전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양궁 김수녕 선수가 세운 역대 한국선수 최다 올림픽 메달 기록을 깨게 된다.

펜싱여제로 불리는 김지연 선수도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올림픽 무대에 오르며, 불자인 양학선 선수도 런던올림픽 이후 9년만에 나선다.

대표적인 메달권 선수들과 함께 선수촌 법당에서 명상 등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선수들의 선전도 기대된다. 유도 곽동한, 역도 김수현, 양궁 강채영, 펜싱 전희숙, 구본길, 배드민턴 채유정, 백하나, 김소영, 공희용, 전이주, 이세연, 카라테 박희준 등은 법회에 매주 참가하며 정신수양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창설된 종목인 가라테의 박희준 선수는 “어릴적부터 아버지따라 대전 고향에가면 사찰에 들렀다. 사찰에 모셔진 할머니를 보러간다는 마음으로 선수촌 법당도 찾았다”며 “법당에서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차분해진다. 그 차분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도 곽동환 선수도 “선수촌 법당에서 다른 종목의 동료선수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았다. 부처님 가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체육인전법단장 퇴휴 스님은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 불자선수들을 크게 보살피지 못해 미안함이 있다. 국난에서 항상 국가대표들이 선전하며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올림픽에서 상대에 주눅들지 말고 가진 실력을 모두 뽐내고 돌아왔으면 한다. 이미 메달 여부를 떠나 이들은 우리의 챔피언이다. 부처님 가피도 함께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조계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선전기원법회를 취소하고, 7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불교성전과 홍삼, 응원메시지 등을 담은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만해백일장 비대면 개최

대한불교청년회는 제41회 전국만해백일장 대회를 8월 예선과 9월 4일 본선으로 나눠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선은 우편접수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8월 7일 오전 10시에 시제를 발표하고 예선작품은 8월 12일 우편발송 소인분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면 취소된 만해백일장은 예선은 비대면, 본선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용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본선진출자는 8월 23일 발표되며 9월 4일 서울과 경북도청 등에서 본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